

전북농산물, 수도권 시민 입맛 공략

전북농협, 광역 브랜드 삼송 하나로마트서 판촉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전북도 농산물 광역 브랜드 삼에삼미(예담채·예미향·참예우) 홍보 및 전북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하나로마트 삼송유통센터(사장 이구철)에서 '전북도 농산물 예담채, 예미향, 참예우 판매전'을 개최했다.

이번 판매전은 수박·복숭아·블루베리·방울토마토·파프리카·양파·오이·상추 등 원예농산물인 예담채, 양곡인 예미향, 축산물인 참예우 등 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출하되는 품목과, 농촌 융복합 산업(8차 산업)의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오복야 등 12개 업체의 100여개 품목이 참여하여 제품 홍보와 함께 판촉 활동을 하며 수도권 시민의 입맛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전북농산물 홍보 및 판매확대를 위해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 및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전북농협이 고양시 덕양구 소재 하나로마트 삼송유통센터에서 '전북도 농산물 예담채, 예미향, 참예우 판매전'을 개최했다.

유통업체에 지속적으로 통합 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재도 본부장은 "전북의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계절에 맞는 농산물을 지역별·품목별 릴레이 상품을 개발하여 연중 공급"을 제안했다. 이에 이구철 삼송 하나로마트 사장은

"수도권에서 전북 농산물이 꾸준히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이재영 "韓 경제 경쟁력 있어... 日 수출 규제 정치적 대응 불가피"

"국제 사회 日 처사 우려할 것 다만 충돌보다 협력이 최선"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2일 "한국 경제의 경쟁력은 이런(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구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야기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정치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 국정연구단지에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이라는 이름의 현안 토론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로 원하는 게 자국의 경쟁력 강화인지, 주변국의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 경제는 결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원장은 일본이 이렇게 행동하는 배경에 '불안감'이 있다고 봤다. 반도체 이외의 분야에서도 한국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역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그는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중국에 빼앗겼는데 그동안 주니어 파트너로 여겼던 한국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불안이 있다. 일본 지도부의 초조함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이 한국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세계의 복잡한 공급사슬(Supply Chain·공급 사슬)을 망가뜨린 데 대한 국제 사회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그는 "공급 사슬 교란이 세계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텐데 국제 사회에서도 일본 처사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일본의 패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주제 발표를 맡은 김규관 KIEP 선임경제실장은 "일본이 공급 독점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일본의) 해외 공장으로부터 우회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은 초기 우려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찬권 KIEP 무역통상실장도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주제 발표가 모두 끝난 뒤 토론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생산 차질이 빚어졌을 때 일각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큰 폭의 성장 저하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단기적인 영향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를 바꾸

지는 않는다"고 단언했다. 마이크론, 도시바 등 경쟁사들이 생산 라인을 증설하려면 천문화적인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시장으로 넘어간 미국, 일본 등이 한국의 먹거리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거 산업 구조)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작다.

김규관 KIEP 선임경제실장 또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3개 품목 중 포토크레지스트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와 무관하다. 일본 수출 규제가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현재의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국제통상법적으로도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천기 KIEP 무역협정팀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주제 발표에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국가가는 '화이트 리스트'를 유지하면서 한국만 핀포인트(Pinpoint)해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트(GATT) 제1조 제1항에 의거해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부여하던) 특혜를 주다가 취소하더라도 여전히 가트 1조 1항에 따라 최혜국 대우의 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한국에 마이너스(-) 초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부여하던 특혜를 없애고) 일반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주장이 틀린 셈이다.

다만 이들은 여전히 '한·일 양국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큰 차원에서 보면 충돌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통한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충돌이 격화되면 양국 관계를 넘어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충돌보다는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도 "한·일 간 관계 악화가 전방위적이고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철저한 준비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일본과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신뢰 관계를 깨뜨려가면서까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기초적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사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홍남기 "日 수출 규제 대응 추경 1200억원보다 커질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규모를 두고 "1200억원보다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처에서 지난 주 1차적으로 요청한 사안을 빠르게 검토한 초기분이 1200억원 정도"라며 "지금 부처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기재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원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추경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이 검토 중인 3000억원 수준의 추경과 관련해서는 "당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요청한 형태인 것으로 안다"며 "당 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과의 무역 마찰과 관련해 다각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대법 판결이 난 후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검토를 해왔다"며 "소재·장비·부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7~8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난 12일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사랑앓 양파 40톤 구입' 전달식을 실시했다.

"사랑으로 어려움 함께 나눴어요"

전북은행, 완주군과 '양파 40톤 구입' 전달식 가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2일 완주군청 군수실에서 '사랑앓 양파 40톤 구입'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 김용우 완주군청지점장, 김경진 사회공헌부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지역유일의 향토은행으로서 유례없는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양파 소비촉진에 적극 앞장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북은행은 완주군에 소재한 농가들로부터 구매한 2천만원 상당의 양파 40톤을 전 임직원들에게 전달해 소비하고, 대내외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소비촉진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임재원 부행장은 "사랑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눴어요"

에 담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전북은행은 지역유일의 향토은행으로서 유례없는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양파 소비촉진에 적극 앞장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김윤상기자

